

## 대한노인회 방문 연설

대한노인회 안춘생회장님 그리고 각 지부의 회장님 여러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게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인사말씀도 드리고 또 한국의 노인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노인대회가 열렸을 때 다른 일정 때문에 미처 가 뵙지 못한 점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작은 자리나마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발린 얘기로 노인복지를 얘기하고 노인공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고만 정치하는 사람들 입에 발린 얘기로 이렇게 들릴까 싶어서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성실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노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부모를 모시고 어른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에서 자기 자식새끼는 다 귀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웁니다. 키우는데 짐승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짐승과 달라서 부모를 모실줄 알고 그 사회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

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독일 하원국회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제도 개혁의 토론이 있었을 때 많은 젊은 의원들이 노인복지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반대했을 때 삭감을 주장했을 때 그때 독일 국회의원이 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참 우리가 도리에 너무 빠진 형편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40년을 돌이켜보면 우리경제가 백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인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모두 자랑합니다. 정말 세계신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일을 해 내신 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대로 따져보면 바로 오늘 날 60대 70대 80대를 사신 이 분들이 한참 열심히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식교육에 투자해 왔고 또 허리띠 졸라매고 스스로 노력하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노인 여러분들이 세계최고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훌륭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참 많이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농경사회가 해체되고 산업사회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점차 노인들이 설자리가 없어진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느 쪽으로 변화해 갈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윤리의 붕괴라든지 범죄라든지 그런 가정의 파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위협으로부터 온전히 버티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이고 노인들을 잘 모시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생각합니다. 이런 큰 어떤 가치판단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노인들을 어떻게 모시면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을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세대 제가 57입니다. 저의 세대는 아마 연금제도를 잘 충실히 해 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로 절반정도가 아직 연금제도속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맞추어 나가면 저희세대는 그럭저럭 노후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이 문제입니다. 연금제도가 그 동안에 발전되지 않고 우리가 준비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책을 한꺼번에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9년 되면 노인인구가 약 14.7% 15% 가까이 이렇게 가고 확실하게 고령화사회가 된다고 하니까 그 사회에 대비하는 중요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일이고 또한 가지는 지금 노령에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해 가야 할 문제 2020년을 준비해 가야 할 문제는 차후에 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당장 노령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이 있다면 우선정부예산을 좀더 노인예산을 좀더 높게 일단 편성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1% 정도로 이렇게 한번 책정을 해 보았는데 우리당의 김성순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따져보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좀 제대로 노인들을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더 늘려야 된다 1.5내지 2%로 늘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꼭 1.5내지 2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경로연금을 5만원 정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도 두배 정도는 올려드려야 제대로 그것

도 부족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최소 한 성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신 어른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평소에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의료체계가 몸에 많이 아파서 치료를 깊이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입원하게 되어 있는데 노인들은 입원치료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아무요양과 간호가 없이 혼자감당하기에도 어중간하고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원치료수준으로 국가에서 배려를 해 드리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자면 아무 보호가 없고 그래서 노인들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인질병에 적절한 요양병원들을 보다 많이 기술해서 입원치료보다 좀더 가벼운 보호 또 가정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보호를 하는 이런 요양병원을 많이 좀 늘려 가지고 어른들에게 적절한 치료 또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예산이 좀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의료제도 중에서 의료법만 있고 모든 것이 의사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인들을 모실, 자격을 가지고 질 높은 노인간병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제도를 바꾸어서 가정간병제도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고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젊은 사람들이 과거 케네디 시절에 뉴프런티어라고 해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썼던 정책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정시간 소위 국가를 위한 자원봉사기간을 두어 가지고 그 봉사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유치직이라든지 사회활동에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활동 특히 노인들에 대한 간호나 뒷바라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런 것

이 훌륭한 사회봉사가 되도록 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아주 대폭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가가 다해 주어야 하지만 국가가 다하는데는 세금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방법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당장은 그 다음에 일자리대책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순 의원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고요 제가 큰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퇴직을 늦게 해야 되고 퇴직하고 난 뒤에도 적당하게 맞는 일자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일자리가 아니라 과거에 해왔던 전문직의 기능을 살릴 수 있게 과거직업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노인의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이런 것도 열심히 개발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요양을 말씀드렸습니다.

치매라든지 중풍이나 이런 간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돌보는 게 한계가 있고 그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도 나빠지고 감당 못하면 짜증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고 또 노인 되셨을 때도 배움이라는 것은 우리한국에서 지금 배움이라는 것은 앞으로 취직해서 사회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수단인데 배움 그 자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느 대학에서나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방해 드리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들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우리가 개발할 때 큰 원론에 있어서는 저의 생각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르신여러분들께서 직접 나서셔서 협력하시고 활발하게 직접자원봉사하시면서 여러 어르신 손으로 집행되어 나갈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자주 모이시고 토론하시고 오히려 사회봉사를 건강활동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일자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어르신들께서 자주 모이시고 이렇게 정책을 연구하고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연구도 의뢰하고 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센터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하되 노인회관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순의원께서 노인회관예산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싸웠던 모양이지만 그것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돈을 어떻게 끌어내서 라도 노인회관은 꼭 마련해서 거기에서 (박수소리) 그냥 모여서 장기 두고 바둑두고 노시는 곳이 아니라 전국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그쪽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생산되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의 평가를 잘 압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신용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헛말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의 신용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때부터 할 수 있는 약속 만하고 할 수 없는 약속은 안하고 손잡을 사람과 손잡고 손안잡을 사람 안 잡고 정확하게 해 나가서 헛말하지 않는 대통령 되도록 꼭 한 가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 약속도 헛말이 되지 않도록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흔히들 정치에서 세대교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새로운 정치를 얘기합니다.

낡은 정치청산하고 정치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인데 이 말은 부정부패라든지 거짓말이라 든 지 계보정치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연세 많은 사람무조건 무시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인터넷을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노하셔 가지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맛 좀 보여주겠다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대체로 정치지도자가 하는 일이 굉장히 경우입니다. 때로는 밤잠도 못 잘 때도 있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도 있고 이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좀 젊은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계의 추세에 따라서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추세에 따라서 좀 젊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그렇다고 대통령이 젊다고 해서 우리 나라의 어른들 다 못살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이 어른을 잘 모시지 않겠습니다. 노무현이는 어른들은 다 집에 가라한다 혹시 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